

제2092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덩치 커진 네이버, 2년 만에 '임원제' 부활 14



이진희 자이글 대표 "산소케어 제2도약" 16

코스피(8일 전주 대비) 2137.44 (-58.00P) 코스닥 735.97 (-4.72P)  
환율(달러당 원화) 1136.20 (+11.5원) 금리(국고채 3년물) 1.802% (-0.011%p)

## 아파트 '보유세 폭탄' 터진다... 1주택자도 '초비상'

### 스페셜 리포트

####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15일부터 열람 작년 서울 아파트값 8.2% ↑ '12년새 최고' 보유세 수백만원 늘어 은퇴자 등 부담 가증

부동산 시장 변동성의 분수령이 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이번 주에 시작된다.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고, 금융 부담 등으로 급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아파트 공시가격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3면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예정공시가격' 열람이 이달 15일부터 가능하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에 나온다.

이보다 앞선 다음 달 19일 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열람 뒤 관보에 공시한다. 이후에 한 번 더의 신청을 거쳐 공시 조정도 진행한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기록을 경신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시장의 중심축인 만큼 인상률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 상승률은 2007년 전국 22.8%, 서울 28.5%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2%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상승률(4.7%)보다 3.5%포인트 큰 폭이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지난해 수준만큼

만 오른다고 봤을 때 서울 주요 지역 고가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라도 수백만 원의 보유세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지난해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압구정현대 전용 196.21㎡만 하더라도 2018년 공시가 24억8000만 원에서 2019년 27억5592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에 따라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1주택자(만 59세 미만)가 내야 할 보유세는 2018년 1380만4128원에서 2019년 1998만7088원으로 약 618만 원 늘어난다. 소득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소득이 없

는 은퇴자 등은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편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이 토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이미 높은 만큼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주요 기준인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지만 상승폭은 당시 23.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가 넘을 것이라 관측과 함께 지난해 말 가격 하락세가 얼마만큼 반영될지를 주된 변수로 꼽았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주총시즌 개막

### LG전자·포스코·효성·기아차 상장사 119곳 이번주 표대결 '행동주의 펀드' 주주운동 주목

올해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된다. LG전자, 포스코, 효성, 기아차 등 주요 상장사 119개 업체가 이번 주(11~15일) 주총을 연다. ▶관련기사 4면  
삼성전자(20일), 현대차·삼성바이오로직스(22일), LG·SK텔레콤·셀트리온(26일), SK·한화·한진·대한항공(27일) 등도 잇따라 주총을 열 계획이다.

올해 주총 최대 이슈는 주주 행동주의 투자자와 대기업 오너·경영진 간의 대결이다. 또 양측의 대결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행보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최대 관심 기업은 한진칼·한진·대한항공이다. 한진그룹은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속 행동주의 펀드 KCGI의 주주 운동 도전을 받고 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에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 한도 제한 등의 안건을 제안했으며, 한진그룹 회장인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이사 선임도 반대하고 있다. KCGI 측은 한진칼 지분을 12.01%, 한진 지분을 10.17%까지 늘린 데 이어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차명 소유(3.8%)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양사 대결의 열쇠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 주주(지분율 11.56%)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지분율 7.34%)로,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안을 제시, 한진 일가를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주권 행사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역시 주요 관심 기업이다. 엘리엇은 현대차(지분 3% 보유)와 현대모비스(2.6%)에 총 8조3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각 3명과 2명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엘리엇의 배당 요구 및 사외이사 선임 주주 제안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표대결이 예상된다. 고종민 기자 kjm@



어느새 꽃피는 봄

국성을 부르던 미세먼지가 주춤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맞이에 나선 상춘객의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졌다. 10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은 시민이 분홍빛 홍매화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현대차, 'GBC' 공동개발 선회

### 해외 연기금·국부펀드 등과 타진 '뉴욕 허드슨 야드 개발' 벤치마킹 미래 투자재원 확보 위한 전략인 듯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추진 중인 초고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전략을 전격 수정했다. 자체 개발이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와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관련기사 12면

10일 현대차그룹은 국내외 투자자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GBC 건립 공동 개발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외 연기금 △국부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국내 우수 기업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GBC 건립과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외부 자금을 일부 조달해 이를 바탕으로 GBC를 완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투자 효율성 측면과 GBC의 뛰어난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해 미국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뉴

욕 허드슨 야드 개발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허드슨 야드 사업은 뉴욕 허드슨강 유역을 따라 개발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토지 매매계약 당시 10조5500억 원의 대금을 지불했다. 현대차가 55%를 부담했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각각 25%와 20% 비율로 참여했다. 이후 건축비 역시 현대차와 이들 계열사가 같은 비율로 분담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차그룹이 'GBC 공동개발' 카드를 택한 것은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해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주주와 시장 관계자들을 초청해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 2023년까지 연구·개발(R&D)과 미래 기술 등에 45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최종 심의를 통과한 GBC 사업은 서울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英 '브렉시트' 운명의 한 주

### 수정안·노딜 등 최대 3차례 투표 EU 27개 회원국 찬성해야 연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긴 드라마의 끝을 짚게 될 전망이다.

영국 하원은 이번 주 최대 세 차례의 투표를 한다. 첫 투표는 이달 1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브렉시트 수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이다. 영국 하원이 1월 15일 메이 정부와 EU가 합의한 'EU 탈퇴협정'과 '미래 관계 정치선언'을 230표 차로 부결시킨 데 따른 두 번째 브렉시트 수정안 투표다. 다만 EU와 영국은 아직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 국경 문제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라고 미국 CNBC방송은 전했다.

브렉시트 수정안이 재차 부결될 경우 바로 그다음 날인 13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영국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탈(脫)런던 선언'도 노 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CNBC는 영국 의원 대부분이 노 딜 브렉시트를 반대하고 있으나 투표에서 이번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투표가 모두 부결되면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를 15일 앞둔 오는 14일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표결하게 된다. 다만 브렉시트 연기에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9일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 직장인들 칼퇴근... 자기계발·여가활동에 지갑 열었다

## 주52시간 근무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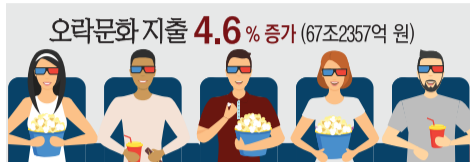
외국어 학원·문화센터 등록 증가  
작년 교육비 3% 늘어난 42兆  
취미용품 판매량 8년새 최대폭  
와인 12%·맥주 17% 수입 급증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일까. 지난해 직장인들의 교육비와 오락문화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교육비 지출(명목)은 42조2479억 원으로 전년보다 3.2%(1조3107억 원) 증가했다. 지출 총액은 사상 최대였던 2011년(42조8121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증가율은 2009년(3.2%) 이후 가장 높았다.

교육비 지출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감

## 근로시간 단축 효과(전년 대비)



소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그러다가 2016년(0.5%)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후 매년 증가율이 확대되는 추세다.

교육비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이 꼽힌다.

특히 근로시간은 지난해 7월 법정 근로 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는데, 교육비 지출이 급증한 것도 이 시기였다. 한은은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외국어 학원이나 문화센터에 등록한 직장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인들을 겨냥해 평일 저녁 강좌를 늘리거나 시

간대를 조정하는 문화센터 등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오락문화 지출도 67조2357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2011년(5.8%)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액 지수도 오락, 취미, 경기용품이 전년보다 12.3% 늘며 2010년

(13.0%)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국제통계에서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등 스포츠시설은 영업 사업자는 27.9% 늘었으며, 실내스크린골프와 헬스장도 각각 9.1%, 6.9% 증가했다.

교육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이 직장인들의 오락문화 지출을 늘리는 데 인했을 거라는 게 한은 등의 분석이다.

회식 문화도 바뀌고 있다. 주된 회식 장소인 술집 경기는 불황인 데 반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맥주와 와인 수입량은 크게 늘었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와인 수입 증량은 4만291톤으로 전년 대비 11.5% 늘었다. 맥주 수입 증량도 17.1% 급증했다. 수입 맥주는 '4캔에 1만 원' 등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마케팅에 힘입어 판매량이 매년 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드라마 줄줄이 꺾고 있는 '솔로' 김 대리

1인 가구의 하루평균 TV 시청시간이 3시간 10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용찬 연구위원이 발표한 '1인 가구, 능동적 미디어 활용자'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TV 이용시간은 3시간 10분으로 1세대 가구(부부+3시간 24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나홀로 1인 가구 가운데 20대 연령층이 21.7%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19.1%로 뒤를 이었다.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의 평일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2시간 53분, 2세대 가구(부부+자녀)는 2시간 22분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의 일반 TV 보유율은 91.6%로, 전체 가구 유형 가운데 최저였다.

1인 가구 TV 이용시간 하루 평균 '3시간 10분'

1세대 가구 다음으로 많아

TV 보유·유료방송 가입 최저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기 활용 프로그램 몰아보기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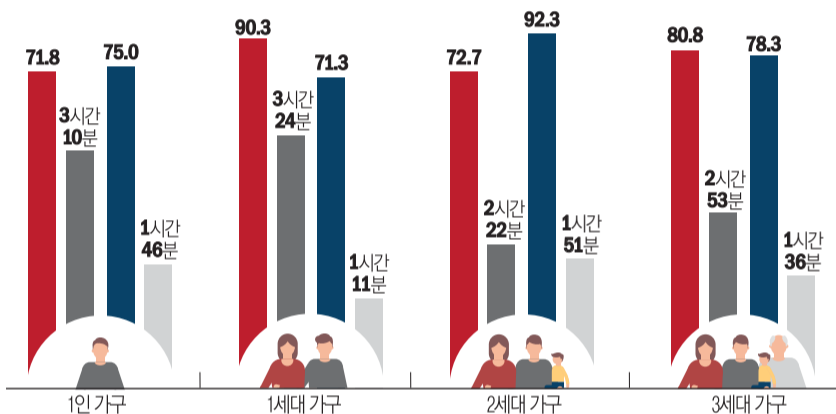
TV 보유율은 3세대 가구가 100%로 가장 높았고, 1세대 가구 98.7%, 2세대 가구 98.2% 등의 순이었다. 1인 가구의 디지털 TV 보유율도 78.8%에 머무르면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낮았다. 3세대

가구가 97.7%였고, 2세대 가구 95.5%, 1세대 가구 92.4% 등이었다.

1인 가구의 유료방송 가입률도 85.9%로 3세대 가구(97.7%)와 1세대 가구(95.0%), 2세대 가구(94.5%)에 못 미쳤다. 반면 1인 가구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7.7%로, 2세대 가구(99.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3세대 가구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5.5%로 가장 낮았고, 1세대 가구는 97.0%였다. 스마트폰 보유율은 2세대 가구가 95.6%로 가장 높았고, 3세대 가구 85.1%, 1인 가구 81.5%, 1세대 가구 78.8% 등 순이다. 1인 가구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시간 46분으로, 2세대 가구(1시간 51분) 다음으로 많았다.

## 가구별 TV·스마트폰 이용빈도 및 시간

■ TV 이용 빈도(주 5일 이상) ■ TV 이용 시간(이용 시간은 평일 이용자 평균)  
■ 스마트폰 이용 빈도(주 5일 이상) ■ 스마트폰 이용 시간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시청의 경우 1인 가구의 10대와 20대 이용률이 각각 39.6%, 40.3%로 다른 가구 유형의 같은 연령대 구성원에 비해 2배 내외의 차이를 보였으며 30대 이용률도 29.6%로 3세대 가구의 30대 이용률(32.9%)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방송시간에 맞춰서 시청하는 것보다 몰아보기를 선호하는 특성이 나타나, 향후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 트렌드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모든 사업체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법 시행령 제5조의2, 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문의: 1588-1519



# 4대 금융지주, 2조5000억 배당 보따리 풀었다

지난해 배당금 총액 8.8% 늘어...KB금융, 7597억 최대치  
배당성향 24% 2배로...M&A 실탄 확보 우리금융 5.2%P↓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 총액이 지난해 2조5000억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반적인 배당 성향이 높아난 가운데, 각사 경영 전략에 따라 주가 부양과 인수·합병(M&A) 중 방점을 두는 부분이 달리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 총액은 2조5208억 원으로 전년(2조3171억 원)보다 8.8%(2037억 원) 늘었다.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배당성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풀이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10조4990억 원으로 2011년(8조8322억 원)보다 18.9%(1조6668억 원) 늘어

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은 같은 기간 11.1%에서 24.0%로 가파르게 올랐다.

지주사별로 보면 KB금융이 75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7530억 원), 하나금융(5705억 원), 우리금융(437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배당성향은 하나금융(25.5%), KB금융(24.8%), 신한금융(23.9%), 우리금융(21.5%) 등 순이다.

금융지주 배당 증가 배경에는 펀더멘털과 비교해 낮은 주가 수준이 꼽힌다. KB금융 PBR(주가순자산비율)은 8일 기준 0.53배, 하나금융은 0.47배, 신한금융지주는 0.62배 등으로 1에 미치지 못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주

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KB·신한·하나금융의 배당성향이 상승한 것과 달리 우리금융은 반대 행보를 보였다. 이 같은 4대 지주의 배당성향을 보면 앞으로의 경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하나금융은 전년 대비 배당성향을 3% 포인트로 크게 높이면서 본격적인 주가 부양에 나섰다. 이승열 하나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18년도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앞으로도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며 고(高)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KB와 신한은 경우 배당성향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 폭이 각각 1.6% 포인트, 0.3%포인트로 크진 않다. 주가가 치제고와 M&A 실탄 마련이라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KB금융은 생명보험 인수에 관심이 있고 최근 증권·카드사 인수 의향도 피력했다. 김기환 KB금융 최고재무책임자

(CFO)는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그룹 내 포트폴리오상 취약한 생명보험에 관심을 두고 있고 자산관리에 우위가 있는 증권사, 고객 세그먼트에 강점이 있는 카드사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도 지난해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에 이어 올해 롯데캐피탈 인수를 검토하는 등 M&A에 적극적이다. 지난해에는 이사회에서 7500억 원 규모의 제3차 배정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유는 “신성장 기회 확보를 위한 자본 여력 유지”로 M&A 여지를 열어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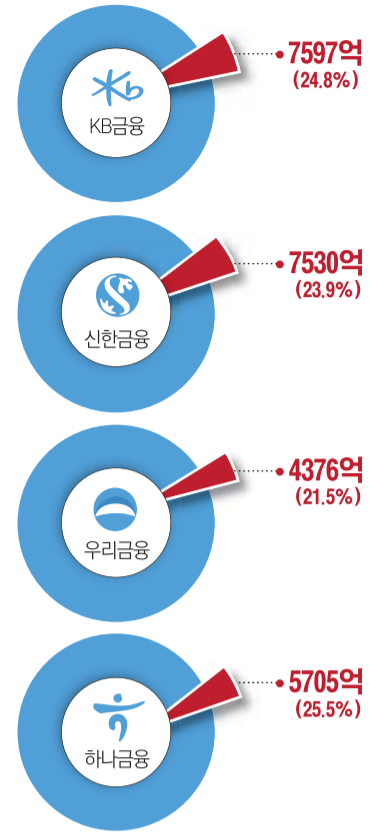
우리금융은 전년(26.7%)보다 배당성향이 5.2%포인트 낮아졌다. 지주사 전환 이후 적극적인 M&A를 염두에 두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은 올해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저축은행, 중앙기적으로는 보험사와 증권사를 사들일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2018년 4대 금융지주 배당액

(단위: 원, 괄호는 배당성향)

● 당기순이익 ● 배당액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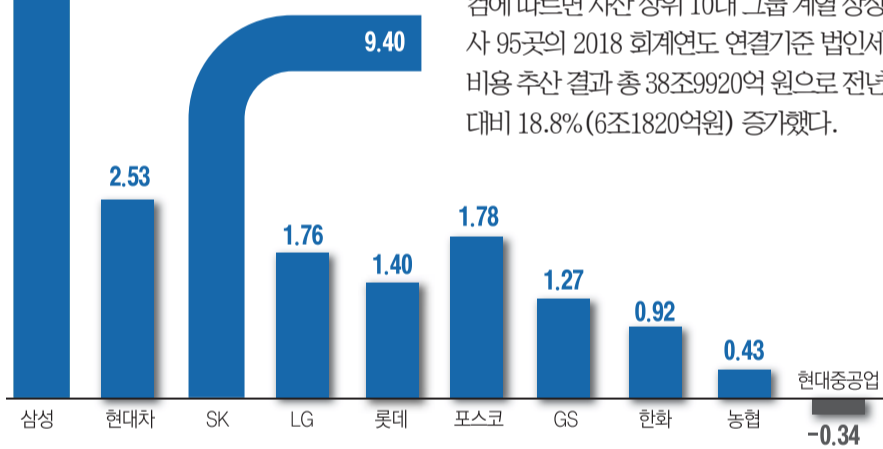
10대 그룹 법인세 합계

38.99

## 10대 그룹 상장사, 법인세 39兆 ‘사상 최대’

삼성전자 17兆 최대...7개 그룹 상승세  
유효세율 28.5% 전년보다 3.7%P 올라

10대 그룹 상장사 법인세 비용 현황  
(단위: 조 원)  
\*출처: 재벌닷컴



지난해 10대 그룹 상장사의 법인세 비용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1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95곳의 2018 회계연도 연결기준 법인세 비용 추산 결과 총 38조9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8%(6조1820억원) 증가했다.

집계 대상 회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인 세전이익은 2017년도 132조5030억 원에서 작년도 136조7740억 원으로 3.2% 늘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의 세전이익이 62조6300억 원에서 71조7660억 원으로 14.6%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15조840억 원에서 19조8490억 원으로 25.6% 증가했다. 특히 삼성전자 세전이익이 61조1600억 원으로 8.8% 증가한 가운데 법인세 비용은 16조8150억 원으로 20.0%나 늘었다.

SK그룹은 작년도 세전 이익이 35조933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6.0%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9조3980억 원으로 44.7%

증가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은 5조8010억 원으로 전년도(2조797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세전이익은 21조3410억 원으로 58.8% 증가했다.

GS그룹은 세전이익이 3조197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2.2% 늘었으며 법인세 비용도 1조2670억 원으로 39.7%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세전이익이 8조398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2.9% 감소했지만 법인세 비용은 2조5290억 원으로 26.2% 늘었다.

10대 그룹 중 이들을 비롯해 롯데·포스코·농협 등 모두 7개 그룹은 법인세 비용이 전년도보다 늘었다.

그러나 LG그룹은 세전이익이 7조8030억 원으로 2017년도보다 36.7% 줄면서 법인세 비용도 1조7570억 원으로 29.1% 감소했다. 한화그룹도 세전이익이 41.7% 줄면서 법인세 비용이 전년도보다 52.2% 줄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세전순이익이 3450억 원에 달해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기업들의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유효세율’은 10대 그룹 상장사 평균 28.5%로 2017년도(24.8%)보다 3.7%포인트 높아졌다. 유효세율은 세법상 세액에서 초과세율 공제 등 세부조정을 거쳐 산출된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고종민 기자 kim@

동네 편의점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 안녕?

“우리동네를 지키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이 되어주세요”

가벼운 인사처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동학대예방 아동이 행복한 우리동네, 주위를 살피는 당신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정책 바뀐 것 모르고 태양광 설치했다간 '낭패'

### 산림훼손 지적... 산지 파손 비용 부담·보조금 50%→30% '전용허가'서 '일시 사용허가'로 변경... 향후 원상복구해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에 따라 태양광(중·소형 기준) 설비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태양광 정책 변화를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작년 12월 산림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산지의 태양광 설비가 까다로워

졌고, 주택용 태양광 설치 지원 보조금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지를 '전용 허가'에서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해 최대 20년간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운영하면 그 뒤에는 설비를 철거하고 나무

를 심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감면 대상이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부과된다. 태양광발전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진입로, 배수로, 경사로, 용도지역지구 등에 문제가 없으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통해 태양광 설비 시공이 수월했다. 더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돼 또 다른 형태의 개발이 가능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산지에 태양광 설비

구축 광풍이 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 훼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 설비 지원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만약 올해 3kW(1kW당 설치비 185만원) 규모의 일반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560만원) 중 168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정부의 보조금이 112만 원 줄어든 것이다. 현재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

게 개선된 만큼 앞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더 축소될 전망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정부 보조금 감소분만큼 투자비(자부담 비용)를 회수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며 "또 태양광을 장기간 사용하면 효율성이 떨어져 태양광 설비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판단해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文 대통령, 올 첫 순방지 아세안 3국 '신남방 정책' 토대 구축 사실상 완성

### 브루나이와 에너지 협력 확대 말레이와 동반자 관계 발전 모색 韓-캄보디아 비즈 포럼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6박 7일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3개국 순방에서 신남방 정책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북미 중재자 역할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은 최근 "우리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 아세안 역내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민 모두가 실질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 11일 불카아 국왕 주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

다. 한국 대통령의 브루나이 방문은 6년 만이다.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의 특허 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다질 예정이다.

12일에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도착 직후 한국 기업이 주최하는 한류·할랄 전시회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13일에는 압둘라 술탄 아흐마드 샤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을 갖는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기존 우호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4~16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시하모니 국왕, 훈센 총리와 회담하고 1만5000여 명의 현지 우리 동포를 격려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를 주제로 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한다. 조현정 기자 jhj@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추경호 "근로소득자 증세 안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0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반대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000억원의 19.2%인 2조4000억원"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고객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장적으로는 탈세 방지 및 감시 기능이 약화돼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년 이상 운영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됐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직 수락... 5월 당 복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사진)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청와대와 거리를 두겠다고 2017년 외국으로 나갔던 그가 2년 만에 당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그는 1월 이해찬 대표로부터 원장직을 제안받았으나 고사



를 거듭하다 지난주 이를 수락했다. 연구원은 당의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다.

양 전 비서관이 원장을 맡을 경우 전략 기획, 인재 영입 등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아 광복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장의 새 임기는 5월 중순 시작된다. 조현정 기자 jhj@

**가볍고 강력한 3D CAD!**  
**ZW3D 만의 강점은?**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공공 기관의 검증 완료

CAD와 CAM이 결합된 All-in-one 솔루션

강력한 '어셈블리 디자인'

카티아, UG-NX, 솔리드웍스 등  
3D 데이터 포맷 완벽 호환

QuickMill 기술을 활용한  
쉽고 빠른 가공 톨패스 형성

ZWCAD KOREA  
TEL | 02.515.5043  
www.zwsoft.co.kr

**그들은 왜**  
**ZW3D를**  
**선택했을까?**

ZW3D All-in-one, Affordable CAD/CAM



# 세상 모든 새로움의 시작



국내 최다 실외 미세먼지 측정기로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개선하고  
5G 스카이스hip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 스마트 시티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기술, KT 5G가 시작합니다



5G로 연결된 360 카메라를 통한 도시 안전 모니터링 5G 스카이스hip

미세먼지 농도  
**98**  $\mu\text{g}/\text{m}^3$

5G 에어맵 정보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5G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미세먼지 농도  
**85**  $\mu\text{g}/\text{m}^3$

5G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5G 에어맵 코리아

미세먼지 농도  
**76**  $\mu\text{g}/\text{m}^3$



PEOPLE. TECHNOLOGY. kt

앱스토어에서 '에어맵코리아(AirMapKorea)'를 다운로드 하세요.





#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 “믿을 건 ‘폴더블폰’ 뿐”



지난해 첫 마이너스 성장  
출하량 삼성 8%·애플 3.2% 떨어져  
혁신적 기능 5G·폴더블폰서 돌파구 찾아  
5년 내 전체 판매 25% 차지할 듯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2월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 행사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공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스마트폰 시장 전망이 우울하다. 지난해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CNN은 지난달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예비 전망 결과를 인용해 작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매출이 1%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작년 스마트폰 출하량 규모는 5년 전인 2014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두톱이자 라이벌인 삼성과 애플 모두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작년 출하량은 전년보다 8% 감소했고 애플의 아이폰 역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 스마트폰 교체 주기 길어져

외신들은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 이유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더 오래 이용하면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혁신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은 전자보다 화면이 커지고 부품 사양은 높아졌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가격은 최고 200만 원까지 올라간 매량 예상보다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단기간 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9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3억 9000만 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19년 스마트폰 시장 성장은 전년에 비해 0.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 기존 제품과 확실한 차별화 필요

기존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이 아니면 시장의 반응을 끌어내기 어렵게 됐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형태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에 시황을 걸고 나선 이유다. 초고용량 데이터를 순식간에 전송할 수 있는 5G, '혁명'이라 불리며 주목을 이끌어 낸 폴더블폰 등 기존 스마트폰이 구현하지 못했던 크기, 구성, 기능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전문가들도 폴더블 스마트폰이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IDC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5G

와 폴더블폰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19년엔 그 수치가 크지 않지만 매년 꾸준히 성장해 2023년이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25%를 5G와 폴더블폰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SA도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대수가 2019년 320만 대로 시작해 2022년 501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 5G 지원 '갤럭시S10' 관심 집중

반응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일 CNBC는 5G를 지원하는 삼성의 갤럭시S10의 선주문이 기대이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TF 인터넷셔널증권의 밍치 귀 애널리스트는 최근 투자자에게 보낸 자료에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갤럭시 S10 휴대폰에 대한 2019년 출하 추산치를 3000만~3500만 대에서 4000만~4500만 대로 30% 늘려 잡았다"고 평가했다.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믿을 건 혁신으로 무장한 폴더블 스마트폰밖에 없다.

김영정 기자 0jung2@

## “5G 콘텐츠 구현에 딱! 비싸도 팔릴 것”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19'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단연 '폴더블폰'이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관 관 속에 전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의 '메이트X'를 보려는 얼리어답터들의 발길이 전시 기간 내내 이어졌다고 전했다. 시장은 폴더블폰의 혁신에 환호했지만 2000달러(약 227만 원)를 웃도는 폴더블폰의 가격에 소비자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의견이 자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폴더블폰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콘텐츠 구현에 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9' 기간 중 박람회장 위에 전시된 5G 로고가 표시된 큐브. 바르셀로나/로이터연합뉴스

줄리 최고경영자(CEO)는 "침체기를 맞았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활력을 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아직 5G 기술이 상용화되

## 지난달 열린 'MWC 2019'서 삼성 '갤폴드' 인기 아몬 웰컴 사장 “10년 만에 스마트폰 외형 벗어나”

장 적합한 단말기기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의 크리스티아누 아몬 사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5G 기술의 등장 덕분에 스마트폰 업체들이 드디어 10년도 더 된 폼팩터(제품 외형)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5G 시대의 스마트폰은 스트리밍, 게이밍, 노트북 수준의 생산성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필요하다"며 "폴더블폰이야말로 5G 구현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이라고 평가했다.

유통업체들도 폴더블폰의 등장에 기대를 내걸고 있다. 미국 대형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의 휴버트

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폴더블폰이 어떤 전략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지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가장 먼저 소비자의 심판을 받는 건 삼성전자의 갤럭시폴드. 갤럭시폴드는 4월 26일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접었을 때 4.6인치인 스마트폰이 되고 펼치면 7.3인치인 태블릿이 되는 갤럭시폴드의 출시가는 현재 1980달러로 책정됐다.

삼성전자의 뒤를 쫓는 화웨이의 메이트X는 아직 정확한 출시일을 밝히지 않았다. 메이트X의 출시가는 2299유로(약 293만 원)로 책정된 상태. 접으면 6.6인치인 대형 스마트폰, 펼쳤을 때 8인치 스크린의 얇은 태블릿으로 탈바꿈한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 h point

##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마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 신한·삼성·롯데카드로 '현대·기아차' 못 산다

## 현대차-카드사, 수수료 인상 일괄 협상 불발

현대자동차와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상 일괄 협상에 실패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협상에 성공했지만, 카드업계 1위와 2위인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현대차가 '가맹 해지' 마지노선으로 정한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신한과 삼성카드의 시장점유율은 약 40%에 달해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국민·현대·하나카드 등 일부 카드사와 현대차가 진행 중인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신한과 삼성, 롯데, BC카드와 최종 협상은 답보 상황이다. 다만 BC카드는 14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한과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각각 시장점유율 23%와 16%, 11% 수준이다. 이날까지 협상안 합의에 최종 실패하면 전체 카드 사용자 절반이 본인 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반면 KB국민과 현대, 하나, NH농협, 씨티카드와의 수수료율 협상은 마무리했다. 이날은 현대차가 앞서 수수료를 협상

국민·현대·하나·농협·씨티  
수수료율 0.05% 인상안 합의  
BC, 14일까지 가맹 해지 유예

대형 할인점, 평균 0.14% 인상안  
영업 손실 고려 점점 도출 가능성

마감 시한으로 정한 날이다. 카드사와 현대차는 협상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카드사는 기존 수수료율에서 0.09%가량 인상한 안을 제시했지만, 현대차는 기존 수수료율 수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버텼다. 하지만, 8일 현대차가 최대 0.05% 인상안을 제시하자 대부분의 카드사가 해당 안을 수용해 이날 합의에 성공했다. 기아자동차 역시 신한, 삼성, 롯데, BC카드를 제외한 카드사와 합의했다.

일부 카드사가 현대차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다른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을

### 현대차 카드수수료 분쟁 현황

일시	내용
1월 말	주요 5개 카드사 '3월 수수료율 인상' 통보
3월 1일	5개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4일	현대차 "10일 카드 가맹 해지"
8일	현대차 "1.89% 수준 조정안 제시"
10일	신한, 삼성, 롯데, BC카드 이외 카드사와 협상 완료



정할 때 '가늠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은 원가로 분류돼 영업기밀에 해당한다. 같은 회사라도 개별 카드사와 협상 과정에서 다른 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어 수수료율 협상 결과 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이번 현대차와의 협상은 세부내용이 공개된 만큼 상위권 카드사는 다른 업종과 협상을 위해서라도 수수료율 인상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카드사는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통신사와도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8일 카드사와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카드사는 대형 할인점에 평균 0.14% 수수료 인상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수수료율은 2%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와 달리 유통업계는 카드 가맹 해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은 카드 결제가 단 하루라도 중단되면 영업 손실이 커 카드사가 제안한 수수료율 인상 범위 안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은 이달 내 종료될 전망이다. 카드사는 1일부터 예고한 수수료율을 각 대형가맹점에 적용해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다. 이후 대형가맹점과 합의한 수수료율을 역산해 수수료 수입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받는 과정을 진행한다. 협상을 계속할수록 서로 부담인 셈이다. 또 여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역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 간접 개입을 예고한 상황이라서 대형가맹점이 협상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DB금융투자
- DB생명
- DB캐피탈
- DB자산운용
- DB저축은행

“ 내 곁에 DB금융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p>국내 손해보험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p> <p><b>DB손해보험</b></p>	<p>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p> <p><b>DB금융투자</b></p>	<p>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p> <p><b>DB저축은행</b></p>
<p>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p> <p><b>DB생명</b></p>	<p>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p> <p><b>DB자산운용</b></p>	<p>대한민국 여신금융의 리딩 컴퍼니 -</p> <p><b>DB캐피탈</b></p>

## 맞 올린 '대우조선 민영화' 통합법인 출범 '암초' 산적

### 산은-현대중, 본계약 체결

KDB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8일 예정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 기업결합 심사 등 '통합조선법인'이 출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본계약 체결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가 본궤도에 오르기 했지만, 최종 완료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와 지역사회 반대,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해외 경쟁당국 불승인이 앞으로의 과정에서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눈앞의 과제는 지역사회와 노조의 거센 반발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거제에서는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 '인력 구조조정', '협력업체 도산' 등 줄곧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체결식에도 대조양 노조원 500여명은 산은 앞에서 매각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앞으로 대조양 실사에 대해 육탄 저지를 통해 이들의 출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성현 대우조선지회 총무부장은 "지역사회 목소리를 들어 봐도 이번처럼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한 밀실 야합은 반대한다는 게 한결 같은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대우조선 매각문제 해결을 위한 거제법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현대중 실사가 시작되면 대우조선의 재무적 상황은 물론 각종 특허가 걸린 기술이나 노하우까지 상세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현대중 입장에서는 추후 기업결합심사에서 매각이 취소되더라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거제 소재 한 조선사 관계자는 "지

구조조정·협력업체 도산 등 노조·지역사회 거센 반발 해외 경쟁당국 승인도 관건 '2.3%' 수은 영구채 금리 인하 고비 넘겼지만 잠재 부담으로

금 거제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면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과 거제지역 협력업체의 불안감이 날로 증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특히 해외 경쟁당국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EU, 중국, 일본 등 어디 하나 쉬운 곳이 없다"며 "EU는 여러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중국과 일본은 주요 경쟁국의 대형 조선소 탄생을 기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은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같이 국내의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등에서 이미 문제없다고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는 해외 경쟁당국이 과연 승인해 줄 것이냐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조양이 수은에 발행한 2조 3000억 원 규모의 영구채 문제는 한 고비를 넘겼다. 이 회장은 8일 "영구채 문제는 적절한 커머셜 베이스 판단에 따라 수은과 현충이 타결했다"고 말했다. 영구채 금리를 낮추고, 출자 전환을 당분간 하지 않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쌓여가는 영구채 이자와, 큰 규모의 출자전환은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잠재적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KARL LAGERFELD

PARIS



20세기 가장 축복받은 천재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KARL LAGERFELD)

**2019년 3월 12일 밤 9시45분 CJ오쇼핑 방송**

[www.CJmall.com](http://www.CJmall.com) / 080-000-8000

---

KARL LAGERFELD PARIS는 칼라거펠트의 럭셔리 캐주얼 라인으로 특유의 명품 프렌치 감성과 아이코닉한 스타일로 접근하기 쉬운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맹목적인 화려함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오는 무드와 일상생활에서 멋스러우면서 실용적이게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을 지향합니다.

---



# “내가 만든 수제맥주 한잔할래?” 캡슐형 가전의 진화

커피 넘어 아이스크림 등 다양화  
1인 가구·소확행 트렌드 영향  
LG 홈브루, 한번에 5리터 제조

캡슐형 소형가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캡슐형 커피머신에서 벗어나 한방차와 수제 맥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내는 기기가 등장하고 있다.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캡슐형 가전이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10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시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 페스티벌 SXSW(사우스바이 사우스웨스트)에서 캡슐형 아이스크림 제조기 ‘스노우화이트’를 전시했다.

스노우화이트는 소르베, 젤라또 등 아이스크림 종류를 결정하는 베이스 캡슐, 맛과 향을 결정하는 플레이버(flavor) 캡슐 2가지를 조합해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기기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노우화이트는 아이디어 제품이라 B2B(사업자와 사업자



1월 미국에서 열린 CES 2019 LG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모델이 캡슐 맥주 제조기 ‘LG 홈브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간 거래)로 출시할지 B2C(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제품으로 내나 직접 소비자를 타겟으로 판매에 나설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소비자 반응에 따라 정식으로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19에서도 또 다른 캡슐형 가전을 선보인 바 있다. CES에서 공개한 ‘LG 홈

브루’는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캡슐 맥주 제조기이다. 사용자는 LG 홈브루에 캡슐과 물을 넣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발효와 숙성 과정을 포함해 2~3주 만에 5ℓ의 최고급 맥주를 완성할 수 있다.

LG전자는 홈브루에 △발효에 필요한 온도와 압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

맥주 보관과 숙성을 위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 등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시장에 출시된 캡슐형 가전은 주로 커피를 만들어내는 기기였다. 커피가 가장 많은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캡슐형 커피머신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는 2016년에 이미 100만 대 이상 판매고를 올렸다.

캡슐형 소형가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는 최근 가구구조 형태와 연관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즐기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4%, 2016년 28.1%, 2017년 28.6%를 기록했고 올해는 3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소비하는 ‘소확행’ 트렌드 또한 캡슐형 가전의 다양화에 한몫했다.

가구구조·소비 트렌드 변화로 캡슐형 가전의 종류는 다양해질 전망이다. 스타트업 메디프레스는 지난해 한방차와 블렌딩 차를 기존 커피캡슐처럼 간편하게 추출해 마실 수 있는 메디프레스 한방 캡슐 6박스과 전용 에스프레소 추출 머신을 선보이기도 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를 따지는 신세대층과 1인가구의 증가 추세가 맞물려 향후 캡슐형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만족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는 가정용 기기들이 꾸준히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주춤 앞둔 현대차 ‘천군만마’ 메이저 자문사, 反엘리엇 권고

글래스 루이스 “사측에 찬성”  
중장기 R&D 전략 긍정 반응

ISS와 함께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미국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가 현대자동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엘리엇 대신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추진 때에는 엘리엇의 의견에 찬성한 바 있다.

10일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현대차 주총 의안과 관련해 엘리엇 대신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글래스 루이스는 배당 의안에 대해 사측이 제시한 1주당 3000원(보통주 기준) 지급에 찬성했다. 엘리엇이 제안한 1주당 2만1967원(보통주 기준)에는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글래스 루이스는 보고서에서 “이번처럼 대규모 1회성 배당금을 지급해 달라는(엘리엇 측의) 제안에 대해 주주들에게 지지를 권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대차가 경쟁력 향상과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당한 연구개발(R&D) 비용과 잠재적 인수합병(M&A)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 입장에 찬성하는 이유를 밝혔다. 1회성 배당 확대가 주주에게 단기 이익을 더해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기업의 생존 전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글래스 루이스는 지난해 5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현대모비스 분할 및 합병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현대글로벌비스 주주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라며 배경을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 루이스가 잇따라 엘리엇의 주주제안을 찬성하자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급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전체에 대한 찬성이 아닌, 현대차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성인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일단 회사의 중장기 R&D 전략과 적절한 배당 확정 등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판교 현대백 U+ 라운지 오픈  
‘브라보’ 등 IPTV 콘텐츠 시연

LG유플러스는 IPTV와 U+tv 프리, AIoT 등 스마트홈 서비스를 총망라한 체험형 팝업스토어 ‘U+라운지’를 판교 현대백화점 10층 토포스홀에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영은 17일까지다.

661㎡(200평) 규모 홈서비스 체험 팝업스토어에서는 △영유아 맞춤형 IPTV로 키즈서비스 고객만족도 1위를 기록한 ‘아이들나라’ △국내 유일 TV로 크게 보는 ‘넷플릭스’ △건강에서 여행, 취미, 창업 정보까지 한 곳에 모은 ‘브라보라이프’는 물론 스포츠 중계 서비스 ‘U+프로야구’, ‘U+골프’ 등 IPTV 주요 서비스를 LG유플러스 직원이 직접 시연하고 설명하면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U+라운지 곳곳에는 인공지능 스피커 ‘프렌즈 플러스 미니’가 설치돼 음성으로 편리한 VOD 검색, IoT 기기 제어 체험이 가능하다. 또 IPTV 체험존 내 로보카폴리, 뽀로로, 공순이 등 캐릭터 모형을 함께 전시하거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킹덤’, ‘기묘한 이야기’ 세트장을 구현해 고객이 서비스별 주요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팝업스토어에 마련된 고객 휴식공간에는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무선으로 자유롭게 IPTV 서비스를 이용하는 셋톱박스 일체형 단말 ‘U+tv 프리’를 배치했다. 집안 어디에서나 편하게 221개 실시간 방송과 18만 편의 VOD를 감상하는 서비스 강점을 휴식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한미약품  
광고심의번호: 2018-1455-004400

### 99세까지 건강하게-

엄마 아빠,  
나인나인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

소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28가지**  
국내 최다 성분 한국인 맞춤 종합비타민  
\*2018년 8월 기준

# 나인나인<sup>®</sup> 정

24h 하루 한알

**【효능·효과】** ●육체피로 ●눈 건조감 완화 ●병중/병후의 비타민 보급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철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능·효과 및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 ‘승차공유’ 갈등불시 여전... 정치인들 규제개혁 힘써야

## 규제개혁이 혁신생장의 답이다

### ⑬ 한상우 '위즈돔' 대표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감옥에 보내겠다는 분위기였다. 법인 설립 10년째인 지금, 공유 버스 플랫폼 운영은 순조롭지만, 승차 공유와 관련한 법은 한 발짝도 진보하지 않았다.”

공유 버스 플랫폼 '위즈돔'은 올해로 법인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한상우(45) 위즈돔 대표가 스스로 '승차 공유'의 시조새라고 칭하는 이유다.

2009년 법인 설립 이후 2010년 'e버스'를 론칭한 위즈돔은 2011년 버스 업계의 형사 고소 움직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위기를 겪었다. 여론과 지역구 의원들의 지지에 2013년 정부로부터 노선 면허를 받아 역경을 극복했다. 그러나 e버스의 재개와는 별개로 승차 공유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지난 7일 카카오와 택시 단체 간 배량 할의가 내려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승차 공유 업체들과 파고를 함께 넘고 있는 한 대표를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위즈돔 사무실에서 만났다.

카카오와 택시 단체 간 막판 합의가 한창이던 이날 한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 문제를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상식과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입법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뜻이다. 한 대표는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민 거주 이전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법도 진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는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싸워 보라, 중재할게'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한 대표는 관료들에게 연민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규제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어떻게 일개 관료들이 할 수 있겠냐"며 "정치인, 장관들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카카오가 인기 좋을 때는 정치인, 시장, 도지사 할 것 없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카카오가 분란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뒤로 빠져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왜 업자끼리의 싸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 씨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을 거쳐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다 2009년 초중고 단짝과 함께 위즈돔을 설립했다. 2010년 세계 최초로 고객들이 직접 모여 노선을 정하는 'e버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비스는 전세버스 회사 측의 반발로 2011년 중단됐다. 여론과 지역구 의원들의 지원에 힘



한상우 위즈돔 대표가 4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카카오 인기 좋을 땐 옆에서 사진 찍더니 카풀 문제 되자 외면” 2009년 ‘e버스’ 첫 서비스... 전세버스 업체 반발에 중단되기도 현재 하루 10만명 이용... 올해 관광·레저 영역으로 사업 확장

입어 2011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이끌었고, 2013년 노선 면허를 받는 데 성공했다. 현재 SK, 한화, CJ, 카카오 등의 통근버스를 스마트화해 200여 대의 대형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아이보스(AIBOS)'라는 버스 관제

·관리·운영 사업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매달 20일 오전 10시가 되면 통근버스를 예약하는 창이 열리는데 5분 안에 전 좌석이 매진된다"고 밝혔다. 출퇴근 셔틀버스 중개 앱 '모두의셔틀'이 월 단위라면 위즈돔은 일 단위로

결제할 수 있다. 위즈돔이 관제, 관리하는 통근버스는 일일 1000대가량으로, 하루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올해 목표는 관광, 레저 영역으로의 확장이다. 이달 29일 개막하는 서울모터쇼를 시작으로 록페스티벌, 프로야구, 겨울의 스키리조트까지 위즈돔은 이들과 협약을 맺고 전용 셔틀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여행사 '노랑풍선'의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 사업도 시작한다.

가장 힘을 주는 부분은 경기도 프리미엄 광역버스다. 스마트 광역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위즈돔은 지난해 6월 카카오 모빌리티와 '스마트버스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한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만큼 기대가 크다"며 "10년을 준비한 프리미엄 광역 버스는 하늘이 무너져도 운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누적 투자액이 350억 원에 달하는 위즈돔은 2021년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상장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하루에 100만 명의 고객을 실어나르는 기업으로의 성장이 목표"라고 했다.

한 대표는 "좋은 버스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는 "결국, 공유 버스는 지구온난화를 막아 북극곰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네이버 2년 만에 '임원제' 부활

## 사내독립기업 증가로 중간관리자급 '책임리더' 신설 임원·주요 인재 637명에게 83만7000주 스톡옵션

최근 동영상과 핀테크, 상거래, 로봇틱스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네이버가 2년 만에 '임원제'를 부활시킨다. 회사가 커지면서 임원급 중간관리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네이버는 '책임리더' 직급을 신설하고 분사 및 계열사에서 68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책임리더는 리더와 대표급 사이에 신설되는 중간관리자급 직책으로, 비동기 임원으로 분류된다. 해마다 계약을 새로 하고, 보유 주식에 대한 공식 의무도 갖는다.

앞서 네이버는 2017년 1월 상법상의 필수 임원(등기이사·사외이사) 7명을 제외한 임원 직급을 전격 폐지했다. 빠르고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해야 하는데, 공식 직함이 소통에 되레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능력 중심의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당시 비동기 임원 30여 명은 모두 임원직에서 물러나 '정규 직원'으로 직급이 바뀌었다. 중간관리

자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에게 '리더'라는 지위를 줬다.

하지만 네이버는 최근 경쟁업체들의 범람 속에서 회사의 신규 투자를 늘리게 됐고, 동영상과 핀테크, 상거래, 로봇틱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직원 숫자가 그만큼 증가했다.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직원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시 임원급 중간관리자를 뽑게 됐다. 설명이다.

무엇보다 각 사업 부문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향후 분사까지 염두에 둔 CIC(Company in Company·사내독립기업)가 증가하면서 책임리더 직급 신설이 시급해졌다. 현재 네이버에는 검색·인공지능(AI)과 사용자생산콘텐츠(UGC) 등 총 7개의 CIC가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CIC 대표를 보좌할 중간관리자급이 필요하다는 자체 평가 있었다"며 "발전 가능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가형 리더가 발굴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임원제가 다시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임원 및 주요 인재 637명에게 총 83만7000주의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한성숙 대표에게는 2만 주, 최인혁 COO에게는 1만 주를 각각 주고, 나머지 635명에게 80만7000주를 배분한다.

다만 해당 스톡옵션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10일 연속으로 지난달 27일 기준 주가(12만8900원)의 약 1.5배인 19만2000원을 기록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렸다. 파운더십(창업가 정신)이 있는 리더들에게 도전의식을 갖게 해주는 인센티브로 풀이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지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재"라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라인, 웹툰, 스노우 등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 낸 '창업가형 리더'들이 네이버의 글로벌 도약을 만든 만큼 더 큰 성장을 위해 스톡옵션과 책임리더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융합보안, 블록체인 등 2019년도 기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융합보안 선도전략 마련할 것”

### 자동차 등 6대산업 보안 강조

“사이버 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리적 손해와 인명 피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사이버 보안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보안까지 신경 써야 한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국민생활 안전에 밀접한 주요 6대 융합산업 분야로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 콘텐츠 △스마트 공장 △스마트 교통·물류 등을 선정했다.

김 원장은 보안 시스템 구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보안이란 물리적 기반에 사이버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설계 단계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융합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모델 발굴, 융합제품 보안내재화 확산, 기기·인프라 보안 강화 대책 등 융합보안의 선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G 기술 상용화에 따른 대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통신 속도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기기의 연결성 증가로 보안 취약점이 상호간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김 원장은 "5G 상용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이동통신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5G 보안 협의회가 설립됐다"며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에도 보안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은 4차 산업과 융합보안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부터 범위와 역할의 재정립도 추진한다. 김 원장은 "올해 5G 이동통신망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장비의 기반시설 지정 타당성 검토와 지정도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친 신성장동력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전문가 그룹 등 정보보호 전문 자문단 구축과 운영, 정보보호 전문 펀드 유치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타다, 모든 차량에 공기청정 필터 적용

브이씨엔씨(VCNC)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초미세먼지 98% 이상을 걸러낼 수 있는 공기 청정 필터를 전 차량에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와 승객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걱정 없이 타다 차량을 운전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한다. 향후 타다 차량에 장착되는 필

터는 세계 최초 차량용 해파 콤비 필터를 개발한 루프트(LUFT) 코리아의 '루프트(LUFT) 차량 전용 HEPA 필터'로, 0.3 μm 크기의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를 98% 이상 제거해 차량 내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10 μg/m³ 이하로 유지한다.

해당 공기 청정 필터는 지난해 11월 말 블랙 색상의 차량으로 운영된 '타다 베이

직 B'에 추가 옵션으로 시범 적용됐다. 이용객, 드라이버들의 호응과 요청에 따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필터 장착이 완료된 타다 차량에는 탑승석 오른쪽 창문에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다.

타다의 가장 기본 라인업인 '타다 베이직'을 시작으로, 4월 출시 예정인 '타다 프리미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누구나 안심하고 청정구역이 실현된 타다 차량을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조성준 기자 tiatio@









# ‘5·18 모욕’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

### 사자명예훼손 혐의... 23년 만에 오늘 광주지법 공판 출석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5·18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한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이후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11일 열렸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

는 만큼 전 씨는 불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첫 공판 기일이 지난해 8월 27일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한 후 1월 7일 공판 기일에도 독감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첫 공판과 선고공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계속 연기되자 장 부장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일종의 강제소환 영장으로,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전 씨는 공판 당일 오전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감은 채우지 않는다. 광주지법은 질서 유지를 위해 추



199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선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

점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고, 주변 경호 인력 배치를 경찰에 요청했다.

한편 전 씨는 1996년 1심에서 5·18 내란 혐의 등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8개월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다.

장효진 기자 js62@

# ‘BMW 화재’ 민사재판 또 연기되나

### 재판부 “수사 후 진행해야”

수개월간 재판이 지연된 BMW코리아의 차량 화재 관련 민사 재판이 또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8일 BMW 차주 이모 씨 등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화재 전조 증상이 보인 차량과 리콜 대상 차량의 차주들이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능자 리콜 의혹이나 회사가 차량 결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내리면 된다”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저희가 그 사안을 먼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 재판은 강제력이 없어

형사 재판에서 강제로 조사하는 만큼 증거를 조사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처분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기일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려고 했으나 원고 측 요청에 따라 5월 24일로 2차 변론기일을 정했다.

다만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구제가 안 되고 신속하게만 되면 어떡하냐”며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축해 재판 진행이 또다시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BMW 차주들은 차량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해 8월을 전후해 다수의 로펌과 손을 잡고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3월에 기일이 예정된 소송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윤한솔 기자 charmy@

# 마사지하다 손님 성폭행 대법도 “강간죄 처벌 타당”

마사지 과정에서 일어난 간음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사지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김 씨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면서 과장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뒤 기습적으로 강간,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진술에 따라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의 명령을 받았다. 2심은 1심 판단과 선고 형량 등이 옳다고 보고 1심판결을 유지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와~ 씨네

3월의 두번째 주말인 10일 서울 종로구 동묘 벼룩시장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옷들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 탄광 퇴직 24년 뒤 난청 진단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 “소음성 난청 초기 인지 못해”

탄광에서 일하다 퇴직한 지 24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노동자였던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업무 환경과 난청 특성상의 이유를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광산에서 다년간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발생한 소음성 난청 이거나 노인성 난청이 악화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난청과 업무 사이의 인

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업소에서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일상생활에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뤄져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짚었다.

광산에서 12년간 근무했던 A 씨는 퇴직 후 24년이 지나 청력 소실, 소음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아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 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다년간 채탄 작업을 하느라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한솔 기자 charmy@

**BRAVO My Life**

Elegance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 '미르의 전설' IP 사업 확대로 제2 도약 꿈꾼다



⑦ 위메이드 WEMADE

2000년 2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설립 ▶ 2001년 3월 '미르의 전설' 상용화 ▶ 2004년 12월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수출대상·특별상 수출공로상 수상

## '게임 한류' 이끈 1세대 온라인게임 개발사

### 19년간 게임 개발 주력

위메이드는 2000년 2월에 설립돼 지금까지 약 19년간 게임 개발에 주력해 온 국내 1세대 온라인게임 개발사다. 미래의 더 큰 성장과 다양한 사업 확장을 위해 지난해 지스타 2018 현장에서 새로운 CI 공개와 함께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위메이드'로 사명을 변경했다.

2000년대 초 자체 개발한 MMORPG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2011년에는 누적 매출 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국내 단일 게임 사상 전 세계 최대 매출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외에도 세계 누적 회원 2억 명(2008년), 중국 온라인 게임 동시 접속자 80만 명 신기록 달성(2005년) 기록을 남기며 온라인 게임 한류 돌풍을 이끌어 왔다.

위메이드는 2010년부터 모바일게임 시대를 예측하고 모바일전문 개발 자회사를 신설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모바일게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 모든 게임 플랫폼을 아우르며 규모와 내실의 성장을 이뤘다.

### 자체 개발 '미르의 전설2' 기반

2011년 누적매출 2.2兆 기록

2014년 '이카루스' 흥행 돌풍

'윈드러너' 등 모바일게임 호평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대처하며 장기적으로 성장과 성공의 근본이 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과 차별화에 집중해 왔다.

2012년에는 모바일 SNG '바이킹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모바일 퍼즐게임 '캔디팡' 등 국내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후 2013년에는 출시 이틀 만에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한 '윈드러너'를 선보였다. 윈드러너는 출시 12일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흥행 돌풍을 이끌었다.

위메이드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역점을 두고 모바일 시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거듭해 왔다. 2013년 5월에는 게임업계 처음

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이카루스'의 시대였다. 5월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이카루스는 PC방 점유율 5%대 진입, MMORPG 장르 1위 랭크, 2014 대한민국 게임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 안정적 서비스와 흥행을 이끌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에 들어서는 포화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재구성하는 변화를 이끌었다. 고품질 모바일게임의 자체 개발을 통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준비하는 한 해를 보냈다. 이후 모바일 게임의 개발과 사업 강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체질개선을 통해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RPG를 비롯한 각종 장르의 신작 게임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해외 사업 부문에서는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IP를 기반으로 중국 파트너사와 다양한 IP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출시한 모바일게임 '이카루스 M'은 일본을 시작으로 대만, 동남아, 중국 등 서비



5월 게임업계 최초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선정 ◀ 2013년 1월 러닝 어드벤처 모바일게임 '윈드러너' 출시 ▶ 2012년 11월 '바이킹 아일랜드' 대한민국 게임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09년 12월 코스타 상장



2014년 11월 '이카루스' 대한민국 게임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년 9월 '미르의 전설2 모바일' 중국 텐센트게임즈社 통해 출시 ▶ 2018년 11월 '위메이드'로 사명 변경

## 개발·퍼블리싱·해외 진출... '종합 게임사업' 목표로

### 새 먹거리 발굴 속도

위메이드는 지난해 창립 18주년을 맞아 사명과 새로운 CI를 선포하고 세 가지 사업 목표를 정립했다.

우선 지식재산권을 개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라이선스 사업으로 '전기아이피'를 설립해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을 활용한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모바일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해외 진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 게임사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담당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위메이드이카루

### '위메이드이카루스' 등 개발사와 '위메이드서비스' 퍼블리셔 설립 공동사업 체제로 시너지 극대화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연구개발도

스', '위메이드넥스트', '위메이드열혈전기 에이치디', '위메이드플러스' 등의 개발사와 전문 퍼블리셔 '위메이드서비스'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개발 전문 자회사들의 독립적 운영과 책임을 강화하고 위메이드 그룹 내에서 게임 기획, 개발, 서비스, 운

영 등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긴밀한 공동 사업 체제를 구축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유명 개발자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개발사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며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과 개발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위메이드트리'를 설립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올 '미르4' '미르M' 출시... "새로운 미르시대 연다"

### IP기반 해외 진출 박차

위메이드는 과거 영광을 잇게 한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해 자체 개발 신작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도적인 스케일을 중심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한 액션 MMORPG '미르4'는 올 상반기 국내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미르의 전설'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미르M'은 하반기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모바일 MMORPG 장르로 제작되고 있다. 여기에 '엔드림'의 김태곤 상무가 미르 IP를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확장한 전략 시뮬레이션 모바일 게임 '미르W(가칭)' 개발을 총괄하며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미르뿐만 아니라 이카루스 IP를 활용한 게임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MMORPG '이카루스M'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서비스에 나선다. 이미 지난해 일본과 대만 지역 정식서비스를 시작했

### '이카루스M' 글로벌서비스 확대

日·대만 이어 동남아 진출 계획

엑스엘게임즈 등 개발사 투자

중국 내 '미르' 등 IP사업 본격화

으며 앞으로 태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모바일에 국한되지 않고 스팀과 콘솔 등 플랫폼을 확장할 예정이다.

게임 외에도 상생을 위한 가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엑스엘게임즈와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등 다양한 개발사에 약 600억 원가량의 투자를 진행하며 상생에 나서고 있다.

중국 IP사업도 본격화한다. 지난달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개발사 37게임즈와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기반

으로 중국 IP 사업이 더욱 탄력을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 결과는 위메이드와 산다게임즈의 분쟁과 관련한 첫 번째 본안 판결이다. 산다게임즈의 서브라이선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로 다른 분쟁에 있어 결정적인 판례로 작용될 전망이다.

또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라이선스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7월 중국 문화부 산하 '중국문화전매그룹'에서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한 IP 등록 시스템 'IPCI 플랫폼'에 참여했다. 앞으로 중국 내 미르 IP(지식재산권)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지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올해에는 자체 개발한 신작을 선보이며 새로운 미르의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 신한만의 로보어드바이저로 세상 편한 자산관리의 시작 신한 SOL Rich 」

신한 SOL Rich의 로보어드바이저가 포트폴리오 설계부터 펀드 추천까지 알아서 자산관리 해주니까



복잡한 세상, 편한 자산관리  
**신한 SOL Rich | 쏘리치**

복잡하고 어려웠던 자산관리는 끝! 신한 SOL Rich로 쉽고 편하게 자산관리 시작!

### 신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고객의 자산진단, 자산배분, 상품추천, 포트폴리오 설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Full 자산관리 서비스

### 쏘리치 펀드

개인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투자상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을 위한 투자상품 포트폴리오

### 쏘리치 퇴직연금

신한은행만의 자산배분 전략으로 자산진단 및 포트폴리오 설계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토탈 자산관리 서비스



지금 '신한 SOL' 다운로드 받으세요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18-2-2851호 (2018.12.13~2019.6.3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8-04868호 (2018.12.13~2019.6.30)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쏘리치 멀티전략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 참여 예정이며, 신한-디셈버 ISAAC 알고리즘은 1차 테스트베드 통과하여 운영중입니다.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 특별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hinhan.com, 1577-8000)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SAMSUNG

99.999%  
이것이 일반 청정과  
초순도 청정의 차이

삼성 무풍큐브, 독보적인 하이브리드 필터로  
무결점에 가까운 청정을 실현하다

초순도 공기청정기

# 삼성 무풍큐브



"미세먼지 99.999% 제거"는 하이브리드 집진필터의 0.3 $\mu$ m 사이즈 미세먼지 집진효율을 의미하며, 필터에 흡입된 공기에 한함. 필터를 한번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 필터 통과 전/후 미세먼지의 개수를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함(시험입자: 0.3 $\mu$ m KCl 입자, 풍속: 1.0 m/s). 국제인증기관 Intertek 검증을 받은 자사 실험 결과이며,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미국냉공조학회(ASHRAE) 정의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함(무풍청정은 무풍모드에서 작동됩니다)